

번호: PO-EM-014					
제 목	직장여성과 비직장여성의 건강행태 비교 분석 A Comparative Study on Health Behaviors in Working Women and Non-working Women				
저 자 및 소 속	이회정1), 정혜선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Heui-Jeong Lee, Hye-Sun, Jung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분 야	환경의학 [산업보건]	발 표 자	발 표 형 식	포스터	
<p>목적: 본 연구는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Alameda 7'에서 제시한 건강행태 중 아침 식사와 간식을 제외한 흡연, 음주, 운동, 비만, 수면의 5개 항목에 대해 직장여성과 비직장여성의 건강행태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p> <p>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료 중 보건의식행태조사에 응답한 여성 전체인 4,929명 중 학생과 재수생을 제외한 20세 이상 65세 이하에 해당하는 여성 총 3,63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자 중 직장여성은 1,803명(49.6%)이었으며, 비직장여성은 1,834명(50.4%)이었다.</p> <p>결과: 1) 직장여성과 비직장여성의 건강행태를 비교해 보면, 흡연을 안하는 경우는 직장여성 94.3%, 비직장여성 95.4% 이었으며, 음주를 안하는 경우는 직장여성 31.6%, 비직장여성 40.6% 이었고, 운동을 하는 경우는 직장여성 18.6%, 비직장여성 32.9% 이었으며, BMI가 정상인 경우는 직장여성 71.3%, 비직장여성 71.7% 이었고, 수면이 적절한 경우는 직장여성 52.6%, 비직장여성 56.1% 이었다.</p> <p>2) 흡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직장여성의 경우 우울·슬픔을 항상 느끼는 경우, 비직장여성은 기혼인 경우, 생활수준이 못사는 편인 경우,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경우 이었다.</p> <p>3) 음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직장여성의 경우는 40대, 50대인 경우, 주관적 건강인식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이었고, 비직장여성은 40대, 50대인 경우, 주관적 건강인식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 건강에 대해 항상 걱정하는 경우, 폐경이 된 경우이었다.</p> <p>4) 운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직장여성의 경우 30대, 40대인 경우, 기혼인 경우, 주관적 건강인식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 폐경이 된 경우, 여성호르몬을 사용한 경우이었고, 비직장여성의 경우는 대졸이상인 경우, 기타의 결혼상태인 경우, 생활수준이 보통이거나 잘 사는 편인 경우, 주관적 건강인식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 유방암 검사를 받은 경우이었다.</p> <p>5) 비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직장여성의 경우 고졸이나 대졸이상인 경우, 주관적 건강인식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경우이었고, 비직장여성의 경우는 50대 이상인 경우, 고졸이거나 대졸 이상인 경우, 건강에 대해 항상 걱정하는 경우이었다.</p> <p>6) 수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직장여성의 경우 30대, 40대, 50대인 경우, 기혼인 경우, 폐경이 된 경우이었고, 비직장여성의 경우는 대졸이상인 경우, 우울·슬픔을 가끔 느끼는 경우,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경우, 폐경이 된 경우이었다.</p> <p>고찰: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직장여성의 건강행태가 비직장여성보다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직장여성의 건강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및 사업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p>					